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

-김명순 소설의 근대여성주체를 중심으로

이수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규범 폭력에 대한 민감성-「칠면조」
- 3 타자의 발견과 연대-「돌아다볼 때」
- 4 책임으로서의 글쓰기-「탄실이와 주영이」
- 5 결론

이 논문은 제89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2022.4.16.)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해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움 주신 토론자 엄진주 선생님과 본 논문을 심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김명순의 소설에 나타난 근대여성주체의 여성문학사적 의의를 주디스 버틀러(J. Butler)의 윤리적 주체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그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버틀러는 ‘추상적 보편성’의 폭력을 밝히고 ‘취약한 단수’로서 불완전한 주체가 ‘말걸기’를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함을 주장한다. 김명순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들은 근대의 규범 폭력에 의해 타자화를 경험하고 유무형의 폭력을 겪은 이들이다. 폭력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신체가 돌출되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출현 조건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에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그들은 자신 안의 타자성을 마주한다. 이렇게 타자성을 마주한 근대여성주체들은 ‘수동성’, ‘민감성’, ‘반응성’을 숨기지 않고 내비친다. 이는 분열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편지를 쓰거나(「칠면조」), ‘타자의존성’을 자각하고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인식하거나(「돌아다볼 때」), 문학을 통해 타율적 관계성을 조망하고 주체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탄실이와 주영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주체로서 근대여성주체가 실천하는 윤리적 말하기는 문학사의 배제된 주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국문핵심어: 김명순, 버틀러, 수동성, 취약성, 불완전한 주체, 윤리적 주체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김명순의 소설에 나타난 근대여성주체의 여성문학사적 의의를 주디스 버틀러(J. Butler)의 윤리적 주체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그 가치를 밝히는 데 있다. 문학사에서 근대소설의 미학적 성취는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양식’이라는 루카치의 견해처럼 남성 작가의 전유물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리타 펠스키(R. Pelski)의 관점에서 근대를 경험하며 서사를 만들어낸 것은 ‘남성’만이 아니며, ‘여성’ 역시 근대를 경험하며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¹

1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The Gender of Modernity』, 자음과 모

특히 개별적 근대여성주체는 ‘성’, ‘민족’, ‘계급’ 등 그 시기의 모든 주요 규범에서 여러 방식으로 타자화²되면서도, 밀려난 자리에서 꾸준히 머물며 자기 서사를 발화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타자를 경험하며 근본적으로 자신 안의 타자성을 성찰할 수밖에 없는 근대여성주체의 존재론적 특성은 ‘인간적인 것(the human)’은 무엇인지 물으며 주체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타자의존성을 이야기한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와 맞닿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가 근대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수동성’과 ‘취약성’에 기반한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세대 여성 작가 김명순의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가 행하는 윤리적 말하기의 방식을 고찰할 것이다. 김명순은 1917년 11월 잡지 『청춘』 현상응모에 소설 『의심의 소녀』가 당선된 후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망라하며 시 「그믐밤」을 발표한 1939년까지 총 14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³ 한국 근대문학이 구성되던 1920년대에 왕성한 문학 활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많은 근대 초기 여성 작가들이 그랬듯 ‘작품 없는 작가’라는 평을 받거나 개인사가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신여성’이라는 하나의 기표로만 기능했다. 첩의 자식, 성폭행 피해자, 일본 망명, 청산뇌병원에서의 사망 등 김명순의 삶의 궤적⁴은 소문의 근거가 되고, 그녀의 문학은 소문에 의해 밀려났다. 본 연구 역시 1세대 여성 작가들 중에서 김명순을 주목한 것은 그의 삶과 문학 때문이다. 김명순 자체가 누구보다 근대의 타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문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 속에서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국 문단에서 여성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김명순 문학의 오명을

음, 2010, 20-37쪽, 참조.

- 2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507쪽.
- 3 남은혜,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제3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201쪽.
- 4 심진경, 「‘김명순’이라는 텍스트와 유전(流轉)하는 여성 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33쪽.

벗기고, 근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그녀의 작품이 가진 의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윤정은 김명순이 가부장적 사회의 사생아, 제국의 식민지민, 자본주의의 하위계급의 타자화를 경험함으로써 그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각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본다. 그녀가 경험한 ‘타자화’의 과정이 소설 속 주체의 경험에서 드러나고, ‘시적 자아’를 통해 ‘타자성’이 발현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⁵ 시와 소설을 모두 살펴보면 김명순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김명순 소설의 주체가 타자화의 경험 속에서 기존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반해 심진경은 김명순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미학적 완결성이 아니라 ‘유전(流轉)하는 주체’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김명순 소설의 주체가 모순적으로 분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회복한다고 바라본다.⁶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가 김명순 소설 속에 나타난 근대여성주체의 발화에 주목하게 된 계기이다.

또한 김양선은 ‘개인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젠더화된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감정=여성’이라는 자질이 근대의 다층적, 유동적 국면을 보여줌으로써 근대 초기 소설 발생의 한 축을 추동했음을 김명순의 소설과 이광수의 초기 소설을 통해 예리하게 분석하였다.⁷ 특히 작가의 성별과 관련 없이 ‘여성성’이 드러나며, 다만 그러한 자질이 ‘더 잘 드러나는’ 여성 작가의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관점을 같이하며 큰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김명순의 소설을 분석하는 틀로 버틀러의 이론에 주목함으로써 이전의 연구에서 ‘여성성’이라고 규정한 ‘수동성’, ‘민감성’, ‘취약성’ 등을 ‘인간적인 것(the human)’의 근본적 조건으로 탈바꿈하여 그 위계를 전복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복은 궁극적으로는 여성문학사 기술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즉, ‘여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을 계토회하거나 이분법을 공고히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그 모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려는 것이다. 더불어 마치 근

5 최윤정, 앞의 글, 490쪽.

6 심진경, 앞의 글, 251쪽.

7 김양선, 「여성성, 여성적인 것과 근대소설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 제5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63쪽.

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과 혐오로 점철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윤리적 말하기의 단초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여성 인물들의 발화 속에서 찾아, 폭력을 이겨내는 힘의 원형을 소설 속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버틀러의 논의가 지닌 확장성과 역동성이 ‘균형잡힌 문학사’를 서술할 때 남성작가/인물, 여성작가/인물 모두가 지닌 ‘수동성’, ‘민감성’, ‘취약성’, ‘타자의존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논파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근대여성작가의 인물을 살펴보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근대여성주체는 성, 민족, 자본주의 등 근대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기준에서 타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기준에서도 ‘보통의 인간’일 수 없었던, 타자화의 고통을 무릅쓰고 계속된 말하기야말로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김명순의 문학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문학사의 다양한 장면들을 유의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출발로서의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명순의 대표적인 소설 「칠면조」(1921), 「돌아다볼 때」(1925), 「탄실이와 주영이」(1924)를 중심으로 근대여성주체 서사에 나타난 윤리적 말하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에는 자신을 모델로 삼는 사소설⁸이 유행이었다. 소설 속에 자신의 실제 상황을 고백하는 글쓰기는 실제적 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⁹ 김명순 역시 본인의 삶의 경험을 소설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입해왔고, 그의 작품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녀의 삶이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순 소설 속 주체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모습들을 통해 김명순 소설이 작가의 자기서사이자 동시에 근대여성주체의 서사로서 윤리적 말하기였음을 분석할 것이다. 각 작품들은 위에서 설명한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의 특성을 중첩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각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8 자신의 경험을 허구화하기보다 그대로의 모습을 써 나가는 소설을 뜻한다.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표현되더라도 작가 자신이 분명할 경우에는 역시 사소설로 간주하였다(진영복, 「한국근대소설과 사소설 양식」, 『현대문학의 연구』 제1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78쪽).

9 최윤정, 앞의 글, 489쪽.

2 규범 폭력에 대한 민감성-「칠면조」¹⁰

김명순의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칠면조」(1920)는 제목에서부터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상기시킨다. 「칠면조」는 작중 화자인 ‘순일’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내면 갈등을 솔츠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로 풀어낸 형식의 소설이다. 순일은 자기 안팎의 일에 촉수를 곤두세우고 감정의 변화를 세세히 포착하는 예민한 여성으로,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하다가 급기야 신경쇠약에 걸리고 만다. 이러한 여성 인물은 근대 문학장에서 손쉽게 ‘히스테리적’인 인물로 폄하되곤 했다. 하지만 예민함은 곧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날카로운 촉수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그 환경의 모순과 본질적인 폐해들을 드러내는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일의 예민함은 버틀러를 경유하면 추상적 보편성으로서의 규범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밝히는 기제가 된다.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를 ‘이성애적 젠더 규범’의 폭력성을 밝히고 행위주체성을 통한 전복을 이야기한 버틀러는 9·11 테러 이후 ‘규범 폭력(normative violence)’¹¹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의 조건을 사유한다. 이는 행위주체성을 통해 전복을 행하더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근본적 한계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합리성과 이성으로 무장한 근대적 인간(Man)이 주창했던 ‘보편타당한 윤리’는 사실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폭력과 억압으로서 작동해왔다. 버틀러는 이제 ‘추상적 보편성’인 윤리 규범이 폭력으로 자행되고, 그 폭력에 대응한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첫 시작이 나를 둘러싼 규범 폭력이 ‘윤리’라는 이름의 폭력임을 깨닫는 일이다. 순일이 살아온 근대는 ‘보편타당한 윤리’ 속에서 ‘여성’이 주로 배제되고

10 김명순의 소설은 모두 김명순, 『외로운 사람들』, 송명희 편, 한국문화사, 2011의 판본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하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원문과의 대조가 필요한 경우, 김명순, 『김명순 문학전집』, 서정자·남은혜 편, 푸른사상, 2010을 참고하였다.

11 조현준,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49쪽.

억압되어 온 시대였다. 그녀는 자신이 거쳐 온 곳마다 자신에게 부여했던 특정한 행동 양식들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

선생을 모시고 K부에 있을 때는 그같이 일본 옷이 어울린다고 당신과 교회 안 사람들이 일본여자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곳에 와서 조선 옷을 입으매 또한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서 속히 당신을 따라 가서 독일의 옷을 입고 그 열렬한 패자의 노력을 배우느라고 주야 급급하다가 어스름 저녁때가 되면 마치 K부에 있을 때와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라인 강가를 산책하면 얼마나 유쾌한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31)

위의 기술을 보면 순일은 일본에서는 일본 여자답게, 조선에서는 조선 여자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외부 시선에 충실히 행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불편함까지 드러내지는 않지만, 독일에 가면 또한 독일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우느라고 밤낮으로 노력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노력을 하지만, 순일은 사교계에서 자신은 실패를 거듭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그는 “자못 자기의 행동을 맑게 비추어 볼 거울을 가슴에 품”(32)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추한다. 이러한 순일의 모습은 추상적 보편성에 편입되지 못한, 편입될 수 없는 ‘불완전한 주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규범의 모순과 폭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순일의 모습을 새로운 주체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일까?

버틀러는 ‘불완전한 주체’를 ‘취약성’과 ‘단수성’의 특질로 설명한다. ‘취약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 타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자명한 일이다. 기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우리의 뿌리를 설명할 수 있는 ‘탄생’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나 자신의 근원도 내 행동의 이유도 완벽히 해명할 수 없는 주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순일이,

또 우리 자신이 규범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고, 규범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주체로서는 필연적 과정이다. 다만 이것이 가능하고 완성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버틀리의 윤리라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역설적으로 이같은 주체의 불완전성은 주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주체는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 주지하다시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타자와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방향을 상실하고, 탈중심화를 겪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는 조건에서만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¹² 순일이 자신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고 인정받기 위해 다른 규범-언어를 빌려야 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제공한 언어에 탈취당한다.”¹³ 그러나 순일이 ‘일본 여자’처럼, ‘조선 여자’처럼, ‘독일 여자’처럼 인정받는다 해도 이것은 순일이라는 주체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그저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과 산책하는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만이, 자신의 출현 조건을 설명할 수 없는 주체로서의 온전한 한순간일지도 모르고, 단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시시각각의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를 보여주는 순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순일을 비롯한 모든 주체는 그 순간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어렵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타자와의 부딪힘 속에서 폭력과 상해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자아 형성 과정에서도 늘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나를 규정하게 된다. 즉, 인간은 언제나 ‘타자의존적’이다. 이것은 ‘타자’인 너에게도 마찬가지여서, 하나의 주체란 결국 ‘나와 너의 관계(“I am my relation to you”)’¹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각각의 개체, 즉 ‘나’와 ‘너’인 단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서로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해도 같은 존재일 수는 없다. 즉, 개별자 각각은 환원불가능한 단수성이라는 점이 타자와 나의 관계가 지닌 모순을 촉발한다.

12 주디스 버틀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76쪽.

13 위의 책, 48쪽.

14 위의 책, 142쪽.

근대적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나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말하기’는 말걸기의 구조 속에 이미 전제된 ‘너’의 존재가 결여된 말하기다.¹⁵ “서사적 형식으로 그/그녀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지어 어떤 특정한 윤리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삶의 허위화를 요구”¹⁶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실패 없는 말하기를 하는 일관되고 계몽된 이성적 주체란, 자신의 타자성을, 자신의 신체 밖의 타자를 모두 지움으로써 가능한 말하기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이다.

순일을 괴롭히는 것 역시도 타자와의 관계 맺기이다.¹⁷ 이를테면 순일은 모임에서 자신에게 이전 모임에서 왜 피아노를 안쳤는지 묻는 H선생에게 “몇 번이나 쳐야 다 쳐요?”(39)라고 날카롭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혼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자신을 자책하다가 상처가 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노동운동가 박흥국에 대해서도 그의 친절함 속에 숨겨진 강압성(“아무쪼록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52))을 느끼고, 그의 목소리를 불쾌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회의를 느끼는 순일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그 모순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아래의 내용이다.

‘내 자신아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알았느냐, 또 얼마나 힘써 싸웠느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네 몸이 훌훌 다 벗고 나서는 날 누가 너에게 더럽다는 말을 하라?’(43)

이는 순일이 이른 아침 세수를 하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녀에게 적대적인 사회와 그에 대한 그녀의 고투를 짐작케 한다.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고학(苦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고, 일본인 교사로부터 ‘조선 여자답지 않네요’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순일은 자본주의의 하위 계급, 피식민지인, 여성이라는 타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이러한 경

15 양효실, 「타자와 실패의 윤리-주디스 버틀러와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교차로에서」, 『시대와 철학』 제25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51쪽.

1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013, 112쪽.

17 심진경, 앞의 글, 244쪽.

힘은 순일로 하여금 ‘민감성’과 ‘반응성’을 추동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순일은 근대 공동체의 ‘타자’이기에 나를 규정짓는 ‘타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내비치는 방식이나 타자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송명희는 존 버거(John Berger)의 의견을 빌려 「칠면조」가 “자신 속의 관찰자와 피관찰자”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주체의 분열을 야기하며, 규범의 모순을 피부로 느끼게 만든다.

근대 문학장의 남성 작가들은 이러한 김명순의 작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해왔다. 가장 신랄한 비판을 전개한 인물 중 하나인 염상섭은 김명순의 소설을 “신경질”의 산물, 김명순을 “신경질적 인물”이라 단언했다.¹⁹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화와 단절을 선택²⁰하는 순일이라는 근대여성주체는 그 선택의 순간에 오히려 ‘추상적 보편성’의 외피를 띤 규범 폭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임에서 여성에게 피아노를 치기를 원하는 모습이나 노동운동가인 박흥국이 주장하는 민족을 위한 투쟁의 담론은 근대의 주류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것 내지는 옳은 것’으로 공유된 가치이다. 그러나 근대여성주체에게는 공유할 가치를 구성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감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규범이 폭력이 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때문에 너무나 자명하게 ‘옳은 가치’를 공유한 남성 작가/평론가들에게는 김명순의 여성 인물들이 히스테리컬하게 보인 듯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감정을 공유할 수 없어 ‘보편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여성 주체의 말하기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 자리를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수동성은 버틀러가 지적하듯이 능동에 반대되는 수동이 아니라 배제의 감각을 몸소 체험한 이의 민감성으로 보아야

18 송명희, 「불안한 자아를 통찰하는 심리주의 소설」, 『문예운동』 제139호, 문예운동사, 2018, 191쪽.

19 김도경, 「김명순에 대한 두 개의 진단과 김명순 소설의 존재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37쪽.

20 위의 글, 54쪽.

한다. 때문에 근대여성주체의 반응이 ‘신경증적 발화’라는 오해는 버틀러를 경유하면서 한 주체에게 가해지는 규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자 ‘반응성’으로 재배치된다.

더 나아가 순일은 끝내 타자에 대한 윤리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H 선생을 배웅해야하지 않냐고 묻거나, 그에게 사과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단순히 가부장적 규범이나 계층적 거리를 의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그녀의 고군분투를 폄하하는 일이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면서도 분열의 순간을 참지 못하기도 하는 솔직하고도 윤리적인 주체이다. 그녀는 H선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했던 힐난의 이유를 이야기한다.

동경에는 저보다 오래 피아노 공부하시고 또 자유로 학비를 얻어 쓰면서 저를 보면 외면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왜 무슨 때가 오면 꼭 저더러 피아노를 치라는지 그것이 참으로 불쾌해서 앙앙하다가(47)

순일은 자신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이유가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을 두고 자신에게 계속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 요청이 불쾌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순일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송명희는 순일의 다양한 심리가 궁핍한 경제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²¹ 이러한 경제적 궁핍함은 앞서 말한 대로 순일이 피식민지인, 여성, 자본주의의 하위 계급이라는 여러 조건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주체’로서의 자신을 드러낼 존재론적 조건을, 즉 윤리적 존재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순일은 충분히 그저 타인의 무례나 사회구조적 모순을 탓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타인을 탓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표하고

21 송명희는 이러한 불완전한 순일의 자아가 ‘자기혐오’, ‘수치심 중독’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순일의 감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물론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자에게 말걸기를 시도한 순일의 모습에서 주체의 근본적인 불완전성과 그로 인해 탄생하는 윤리적 책임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송명희, 앞의 글, 2018, 183-185쪽 참조.

자 한다.

이처럼 순일은 취약한 단수로서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구조인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즉 ‘말걸기’의 윤리를 계속 실천하고 있다. 버틀러는 규범과 타자와의 관계로 말미암은 불완전한 주체는 언제나 타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실패함으로써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너’(규범)의 폭력을 인지하면서, ‘너’를 향한 말걸기로 나를 설명하는 윤리적 주체와 같이 순일은 자신 안의 상처와 그 상처를 준 타자를 인지하면서, 또 타자를 향한 말걸기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한다. H선생에게 무안을 준 후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결국 편지로 사과를 전하는 그녀의 태도는 그 자체로 타자를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순일은 자신의 예민함을 통해 규범 폭력과 타자의 폭력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포착하면서도, 타자의 감정에 대해서도 기만하게 반응하는 윤리적인 주체인 것이다.

3 타자의 발견과 연대-「돌아다볼 때」

「돌아다볼 때」는 『조선일보』에 1924년 처음 연재한 후, 작품집 『생명의 과실』(한성도서주식회사, 1925)를 발간하면서 개작하였다. 신여성 류소련이 기혼 남성 송효순을 사랑하게 되며 겪는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소련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고모가 시키는 대로 최병서와 결혼한다. 연재본에서는 최병서도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된 소련이 첩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과 조선의 여인들의 비극적 상황을 절감하며 자살하는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개작에서는 최병서를 유부남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송효순의 부인이자 구여성을 상징하는 윤은순과의 극단적인 대립 관계를 지양했으며, 소련이 자살하지도 않았다. 송명희가 지적했듯 여기에는 불행한 결혼의 문제를 신여성과 구여성의 대립으로 그리거나, 신여성을 극단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던 작가의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²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재본과 개작 중 하나를

22 송명희, 「김명순의 소설과 외로운 사람들 모티프 연구」, 『비평문학』 제59권, 한국비평문학회, 2016, 98쪽.

택하여 논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판본에 드러난 근대여성주체의 인식이 모두 윤리적 말하기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기에 각각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²³

주인공 소련은 첩의 소생으로, ‘나쁜 피’를 물려받았다는 고모와 적모(嫡母)의 여성 혐오적 인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타자화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나쁜 피’에 대한 인식은 소련이 스스로 자신의 태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자신 안에 내재된 타자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동기가 된다. 버틀러는 주체 형성 이전에 이미 타자의 자국이 주체에 남겨짐을 시사한 바 있다. 버틀러는 레비나스와 라플랑슈의 논의를 빌려 자아에 선행하는 타자, 즉 ‘타자의 우선성’에 주목한다. ‘타자의 우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말걸기가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타자가 모든 자아의 구성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분석학자인 라플랑슈 역시 타자의 말걸기가 ‘나의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나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소유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논의를 따르다면 자아는 자아에 선행하는 만남, 즉, 일차적인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건 자아는 ‘실체나 본질’이 아니다. 일련의 ‘관계와 과정’인 자아는 최초의 양육자들의 세계와 관련지어 정의될 수밖에 없다.²⁵ 소련을 괴롭히는 ‘나쁜 피’ 담론은 그녀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아의 자국인 것이다.

이것은 유년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레비나스는 주체 형성에서 유년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주체 형성에서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아의 수동성, 민감성, 영향받음은 공시적이고 무한히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⁶ 이처럼 타자의 우선성과 말걸기의 장면에서 만들어지는 구성적 주체는 자기 자신의 불투명성을 알고 있는 주체이다. 이 불투명성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

23 연재본은 김명순, 『김명순 문학전집』, 서정자·남은혜 공편저, 푸른사상, 2010을 참고하였다. 개작은 다른 작품과 동일하게 김명순, 『외로운 사람들』, 송명희 편, 한국문화사, 2011의 판본을 참고하였다. 인용할 때 연재본은 (연-쪽수), 개작은 (개-쪽수)로 표기한다.

24 버틀러, 앞의 책, 2013, 95쪽.

25 위의 책, 104쪽.

26 위의 책, 158쪽.

는 능력도 갖게 된다.²⁷ 우리가 나 자신이 불투명함과 불완정성을 인정한다면 타자에게 말을 걸 때에도 타자에게 만족할만한, 완결적인 최종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을 계속 제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버틀러가 말하는 윤리적 태도이다.²⁸ 소련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쁜 피’에 대한 고뇌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 ‘너는 누구인지’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뇌는 추후 살펴보듯이 소련이 타자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반응하는 바탕이 된다. 근대 가부장제의 규범은 ‘나와 다른 타자성’을 내재한 ‘타자’를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다졌고, 소련은 그러한 규범에 의해 밖으로 내몰린 상처받은-타자였다.

연재본에서 소련은 결국 최병서와 사랑 없이 결혼하지만, 이후 자신이 최병서에게 속아 첩이 되었음을 알고 충격으로 자살한다. 그러나 소련은 그 상황에서 자책하거나 타인을 탓하기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 여성이 처한 억압의 본질적 구조를 성찰하고, 다른 여성과 연대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서술하면서 결혼제도로 인해 몇 천만, 몇억 조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며, 병서의 전처와 어머니, 자신의 친모, 효순의 아내 은순까지도 결혼을 통해 고통받았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²⁹

그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맷긴것이 앓쌌고원수스러웠다
결혼이무엇이나 과거의 몇천만의 할머니들이 그것땀에 희생이 되었슬
것일가, 욕심만흔 더러운것들에게 몸을더럽히고 또그종자를 나오면 또
남의집처녀들을 더럽히고 버리고 가두고, 욕하고, 그남아부족해서 이부
를 그머리속으로, 생각해내고, 계집녀싸셋을모아서 욕을쓰고 한것들이
사나히가 안이나 예살에는 좃타고하고 지금에는 싨타고 또다른 녀자를

27 위의 책, 75쪽.

28 위의 책, 77쪽.

29 남은혜, 「김명순 소설 <도라다볼때>, <외로운 사람들>에 나타난 신여성의 의미 연구-이광수 <재생>,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 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7-28쪽.

속여서라도 데려오는것이 사나히들이 아니냐

벧을 안보고 방속에 업드려잇다는 병서의전처 남편이내버리여서 침 모로도라단인다는 복실어머니, 남편이일년후에도 가정을 안이이루겟다,한다고 울던은순이 로래에 외아들을 나아놋코 그아들에게 효도를 못 받아서 분푸리를하러오는 최병서의어머니, 모도다-남자의 작품이안이고 무엇이랴 우리에게 집어넛코 세상일을 모르게만 길너노흔 동물들이 안이고 무엇이랴 이갓치 맨드러놋코 욱하고 비웃는이들이 다, 남자들이 아니엿느냐.(연-324-325. 밑줄은 인용자)³⁰

소련은 첩이 된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구조적인 모순 아래 희생당한 이들의 면면을 살핀다. 병서의 전처와 은순까지 언급하는 것은 소련 자신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만드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남자의 작품’이라고 칭해지는 폭력의 구조를 내면화한 여성들에게조차 여성 혐오를 당했던 소련이 오히려 이 모든 폭력의 구조를 인식하면서, 주체가 지닌 타자의존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같은 타자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은 그녀가 지닌 윤리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삶이 ‘우리’ 속에 갇힌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은 한 개인으로서 주어진 불행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포장된 추상적 보편성(김명순의 표현에 따르면 ‘구도덕의 함정’이다.)의 폭력을 응시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물론 연재본에서 고통과 슬픔을 수반하면서도 연대를 꿈꾸었던 소련의 마지막 말하기는 결국 죽음이라는 귀결을 맞았다. 개작에서 김명순은 소련이라는 근대여성주체의 민감성과 반응성을 한층 더 세밀하게 끌어올린다. 개작에서 소련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언젠가 사랑이 이뤄질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활을 사

30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만큼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김명순 소설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대로, 근대의 규범에 대한 내면화와 충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근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규범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었지만,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김명순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주체로서 윤리적 말하기를 행하며 그 규범에 균열을 가하려 했음을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는 것으로 끝난다. 기실 신여성과 신남성에게 자유결혼과 자유이혼은 구세대적 관습을 탈피하는 것이지만, 구여성에게는 ‘강제이혼’이라는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김명순은 자유연애나 결혼, 이혼이 모든 여성에게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모호한 결말을 택했다.

소련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해명하는 위치에서 살아왔지만, 효순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자유연애로서 일관되고 정당화 가능한 서사를 유지한다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은 은순에게도 정을 느끼고, 또한 최대한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소련은 은순의 의심과 질투 섞인 표정을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 구여성에게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된 신여성은 그 강렬한 순간을 통해 신여성이라는 자신의 서사에서 탈주한다. 때문에 소련은 신여성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대신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은순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³¹

“소련 씨 사람은 절대로 누구와든지 꼭 육신으로 결합해야만 살겠다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요한네스에 가까우리라고 해요. 더군다나 조선 여자는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못됩니다.”

하고 생각 깊은 듯이 소련을 바라보았다.

소련의 그 얼굴은 해쓱하게 변했다. 그는 입술까지 남빛으로 변했다. 은순은 가깝기 앉았다가 차를 따라 탁자 앞으로 가서 그 앞에 걸린 거울 속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눈에 독기가 띠는 것을 못보고, 효순이가 소련이와 숨결을 어르듯이 하던 이야기를 그치고 모-든 것이 괴로운 듯이 뜰 앞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이 때 두 사람은 뒤에서 반사되어 비치는 시선을 깨달으면서 똑같이 뒤를 돌아다보았다. 이 때이다. 두 지식미를 가진 얼굴과 다만 무엇을 의심하고 투기하는 듯한 얼굴이 뾰족하게 삼각을 지을 듯이 거울 속에 모

31 송명희, 앞의 글, 2016, 107쪽.

있었다.(개-92)

은순의 시선을 느낀 소련은 “검은 보석을 단 듯이 해썩”(92)해지고, “은순의 불쾌한 낯빛을 미안히 바라보고 숨결 고르지 못하게”(93) 말을 이어간다. 소련은 타자화의 순간에 기민함을 지닌 여성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도 예리하게 포착하는 여성이다. 결말 부분 역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신여성으로서 소련이 효순과 언젠가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결말이 여전히 자유 연애사상을 지지한 채로 은순에게는 상처를 주는 인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대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자.

이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의 쾌활한 용감함이 무엇이랴 대답할까?

‘너희는 무엇을 이름 짓고, 어느 이름을 꺼리며 싫어하느냐. 그중 아름다운 것을 욕하진 않느냐’하지는 않을까? 누가 보증하라. 누가 그 부르짖음을 막을 만치 깨끗하냐. 어떤 성인(聖人)이 그것을 재판하였더냐.
(…)

소련이 이 밤이 새인 이날에 그 회당까지 가서 효순의 강연을 들을 것과 감동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든지 말든지 영원한 생명에 어울려 샘물이 흐르듯이 신선하게 살아나갈 것은 떳떳하겠다 보증된다.(개-99,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나타나는 ‘너희’는 앞서 연재본에서 여성들을 욕하고 비웃었던 제도를 상징하는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울분을 토했던 연재본의 생각을 이어나가 ‘너희는 깨끗하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자유를 얻은 사람의 쾌활한 용감함”을 지닐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효순의 강연을 들든 안 들든 신선하게 살아나가기라는 것은 반드시 효순과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 삶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가두지 않으리라는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작본의 마지막 문장인 “그들의 세상에는 은순이가 없고 병서가 없고 애덕 여사도 없을 것이 당연할 일이다”는 방해꾼이 사라진 곳에서 효순과 행복하겠다

는 전망으로 읽히기보다,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의 타파를 바라는 문장으로 읽힌다.

「돌아다볼 때」 연재본에서 보여준 소련의 연대적 인식과 개작에서의 성찰의 태도는 김명순이 그려낸 근대여성주체가 단순히 신여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련은 그 자신이 가부장제의 폭력성의 결과물이고, 성장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나쁜 피’로 불리며 타자화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타자를 지향하며 연대를 꿈꾸는 윤리적 주체이다. 특히 이러한 주체로의 전환은 전근대적 결혼제도라는 폭력성 속에서 나약한 신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과의 ‘공통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는 ‘수동성’, ‘민감성’, ‘반응성’을 통해 기꺼이 훼손당하려는 책임감을 갖는다. 이 책임감은 상해와 폭행에 노출된 후,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나에게 폭력을 자행한 너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책임은 “타자에 반응하게 되기 위한 자원으로 무의지적 민감성을 사용하는 문제”³²이다. 윤리는 똑같이 ‘너’에게 폭력을 자행하기 위한 폭력의 주체로 돌아가려는 ‘나’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수동성과 반응성은 능동과 자율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신체로 인해 형성된 “공통성(commonality)”에서 기인한다.³³ 버틀러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구성되는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면서 나의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타자들의 세계에 배당된 신체는 타자들의 자국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 삶의 도가니 안에서 형성된다”³⁴고 말한다. 우리의 신체 역시도 언제나 타자를 향해, 타자 속에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은 자신을 둘러싼 근대의 폭력을 ‘무의지적 민감성’을 사용하여 맞닥뜨리며, 자신이 폭력의 주체로 돌아가기보다는 ‘너’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민하는 윤리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명순의 소설에서 버틀러의 ‘인간적인 것’의 속성을 지닌 윤리적 주체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김명순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윤

32 버틀러, 앞의 책, 2013, 160쪽.

33 양효실, 앞의 글, 49쪽.

34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Precarious Life』,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54쪽.

리성을 발굴하는 데에 있다. ‘공통감’에 기반한 모든 여성들의 연대를 발견할 때, 김명순의 소설 속 주체는 나처럼 타자에게 가해진 폭력을 이해하는 인물이 되고, 근대여성주체는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 된다. 이것은 나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까지 미치는 연대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진술이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나 여성 문학의 의의를 보편성의 논의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남성-여성의 대립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폭력의 구조가 근대에도, 현대에도 존재한다. ‘소련’이 신여성으로서 구여성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도 그러한 복잡한 폭력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말한 보편타당하고 폭력적이었던 규범은 결국 배제를 낳았고, 근대 여성 주체는 그 배제의 결과물이다. 근대 여성 젠더는 보편타당하고 폭력적인 규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모습에 근간에 놓인 ‘인간적인 것(the human)’, 즉 인간으로서의 수동성과 취약성, 그것을 통한 연대의 힘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근대 여성 주체가 처했던 모순을 타파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책임으로서의 글쓰기-「탄실이와 주영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인 「탄실이와 주영이」는 1924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김명순이 일본작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1923)의 주인공 권주영의 모델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집필한 소설이다. 김명순의 아명(兒名)인 ‘탄실’을 주인공으로 하며, 소설 속 ‘탄실’이 김명순과 마찬가지로 10년 전 데이트 강간을 당한 것으로 설정된 점, 『너희들 등 뒤에서』로 인한 소문으로 곤경에 빠진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작품은 자전적 소설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작품에 비해 더욱 여실히 드러난 자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탄실이와 주영이」에 나타난 김명순의 ‘말하기’와 ‘탄실’의 ‘말하기’는 중층적인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그 자체로 김명순의 고백이자 저항이라는 점에서 버틀러의 ‘안티고네’와 닮아있다. 버틀러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

레스의 『안티고네』³⁵를 새롭게 읽은 『안티고네의 주장』을 통해서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가진 애매모호함을 규명한다. 안티고네는 정신분석학과 철학, 문학을 막론하고 치열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문제적 인물이다. 독일 관념론 철학자 헤겔(G. Hegel)에게 안티고네는 친족법을 대표하며 국가법에 저항하는 ‘비극적 비장미’를 지닌 인물이며,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 이리가레(L. Irigaray)에게는 남성의 법에 맞서 싸운 저항적 여성 주체의 대표였고, 프랑스 현대 정신분석학자 라캉(J. Lacan)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닌 윤리적 주체였다.³⁶

그러나 버틀러는 안티고네가 “대표성과 순수성을 거부하는 퀴어 주체”³⁷라고 분석한다. 버틀러가 보기에 안티고네는 헤겔의 생각처럼 친족을 대표하지도, 이리가레의 생각처럼 여성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안티고네는 ‘남성’, ‘법’으로 상징되는 질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때로 남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여성-남성의 규범 자체를 뒤흔든다. 또한 ‘안티고네’ 그 자신이 근친애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오빠’에 대한 사랑도 기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 버틀러의 요지이다. 안티고네를 해석하는 버틀러의 관점은 주체를 구성하는 특정한 규범의 기반은 언제나 취약하며, 한 주체는 언제나 ‘행위’에 의해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말걸기’는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의 구조 자체이다. ‘말걸기’를 위해서는 발신자-메시지-수신자의 관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예감한다. 주지하다시피 첫째, 말을 하는 발신자인 ‘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조차 나를 알 수 없는 모순적 주체이며, 둘째, 메시지를 구성하는 언어와 규

35 안티고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테바이 왕 오이디푸스가 생모(生母) 이오카스테와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네 명의 자식 중 하나이다. 안티고네는 전쟁터에서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를 조국의 배신자로 규정하여 매장을 금지한 섭정 크레온(안티고네의 숙부)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에 모래를 뿌려 장례의식을 행하였다가 사형을 당했다. 안티고네는 죽은 가족의 매장은 신들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Antigone's Claim』, 조현준 역, 동문선, 2005, 13-52쪽, 참조.

36 위의 책, 139쪽.

37 조현준,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 『비평과 이론』 제24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89쪽.

범마저도 사회에서 주어진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수신자인 타자에게 “재현 불가능한 것”인 나의 고통을 온전히 설명하길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너’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윤리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내 안의 타자성, 심지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선된 타자성을 인식한 말걸기는 근본적으로 타자를 지향하는 윤리를 내포한다.

‘안티고네’ 역시 말걸기를 통해 자신을 규명한다. 그녀는 ‘크레온’에게 오빠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고백하는데, 버틀러는 이 과정에서 안티고네가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오빠에 대한 사랑, 즉 퀴어적 욕망까지도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특히 버틀러는 ‘안티고네’가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 ‘크레온’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크레온’은 ‘법’과 ‘규범’을 상징하는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는 ‘크레온’에게 자신을 말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물론 ‘안티고네’의 죽음은 이 ‘인정’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안티고네가 자신의 퀴어적 욕망을 밝히며 주체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레온도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감화되어 그녀를 처벌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한다.³⁸ 이처럼 ‘말걸기’의 구조 속에서는 ‘나’와 ‘너’가 필연적 관계를 맺고 함께 변화한다.

이처럼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보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고백했다면, 김명순은 소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소문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내보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주체가 말을 거는 대상은 자신들 바깥에 놓인 타자인 ‘크레온’과 ‘근대 문학장의 남성들’이다. 안티고네와 김명순은 이 타자들에게 극렬히 저항하면서도, 그들의 규범을 일부 내면화한 균열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이야기하는 남성적 법질서를 어느 정도 내면화했고, 김명순 역시 자신의 정조 관념을 표출하고자 한 점에서 이들 타자는 안티고네와 김명순이 자신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안티고네도 김명순도 ‘크레온’과 ‘근대 문학장의 남성들’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배척하기까지 하는 타자들에게

38 조현준, 앞의 글, 2019, 82-88쪽.

끊임없이 말걸기를 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해나간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김명순에게 ‘문학’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방식이었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현재인 전반부와 과거인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에서 ‘탄실’은 침묵한 채 그녀의 이복오빠 김정택, 문학청년 이수정과 지승학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탄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김명순은 정택의 입을 빌려 탄실을 강간한 남자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다. 송명희는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여성 혐오와 성차별주의에 빠진 남성들에게 혐오를 돌려주면서도, 이복오빠 정택과 같은 보호자와 문학청년 이수정과 지승학과 같은 문단의 지지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고 분석했다.³⁹

“주영이란 여자가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원수를 갚는다고 이를 가는 것과 탄실 씨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나 친○파한테, 학대를 받고 오랫동안 변민하는 것은 다를 것이지…….”(232)

“주영이는 끝끝내 이기주의자인 일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속았지만 탄실이는 그 반대로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의 생활과 감정에 동화된 조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네.”(233면)

이처럼 남성들의 입을 빌려 탄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시선들을 논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김명순이 당대의 질서를 의식하여 더 권위 있는 ‘남성’의 발화를 통해 ‘여성’을 변호하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송명희의 분석대로 김명순에게 타자의 인정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해와 폭력에 무자비하게 노출된 김명순은 오히려 자신이 ‘인간’으로서 ‘타율적 관계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김명순은 탄실과 자신을 고립하게 만든 것이 타자이지만, 탄실과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도 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

39 송명희,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144쪽.

히 주영이와 탄실이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조선 사람들이 지닌 모순과 폭력의 구조를 지적하는 것은 김명순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고 날카로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사람은 타자이면서 자기-자신인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에게 학대를 받은 것과 조선 사람에게 학대를 받은 것이 다른 이유는 조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타율적 관계망’을 상기시키는 쪽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사람은 완전한 타자이지만 조선 사람은 연루된 타자이다. 때문에 책임의 구조를 드러내는 데에 훨씬 더 용이하다. 김명순과 탄실이 처한 폭력의 구조에서 김명순은 오롯이 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타율적 관계망’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남성 문학장의 사람들이라도, 그들과 더불어 이 폭력을 타개해나가고 싶은 뜻이다. 결국 김명순이 탄실의 겪은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낸 것도 어쩌면 폭력을 자행한 자들에게 폭력으로 그것을 되갚아줄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탄실이와 주영이」를 오로지 대항 서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심진경의 지적도 유의미하다. 심진경은 “자기가 경험한 실패를 그 뺏속까지 해부”⁴⁰하기 위한 김명순의 ‘작가적 욕망’⁴¹을 배제한다면 문학적 허구화의 욕망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으리라 지적한다. 버틀러가 안티고네에게서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명순은 자신과 같고도 다른 ‘탄실’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 것이다. 김명순의 소설은 그 자체로 내게 가해진 폭력을 너에게 되돌려주기보다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너에 대한 대우를 숙고한 ‘윤리적 책임’의 실천이다.

“나는 남만 못한 처지에서 나서 기생의 딸이니 첩년의 딸이니 하고 많은 업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나라는 약하고 무식하므로 역사적으로 남에게 이겨 본 때가 별로 없었고, 늘 강한 나라의 업심을 받았

40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심진경 편, 교보문고, 2018, 260쪽.

41 심진경, 앞의 글, 246쪽.

다. (...) 지금의 한마디 욕, 한 치의 미움이 장차 내 영광이 되도록 나는 내 모든 정력으로 배우고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첩’이란 이름을 듣지 않을, 정숙한 여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다른 집 처녀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부인의 딸이란 팔자가 아니니 그 대신 공부만을 잘해서 그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264)

김명순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에 의해 훼손당한 여성인 탄실의 어머니 산월과 그 상처가 마치 대물림되듯 이어지고 있는 탄실이 쉽게 삶을 포기하게 두지 않는다. 탄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한다. 버틀러에게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수동성과 취약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취약성과 수동성은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된 연약한 상태를 지시하지만, 단순히 존재의 허약함이나 능동성의 부족인 부정적 상태를 칭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신체를 가진 인간은 일차적으로 결코 물리적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⁴² 하지만 이 취약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함이 자명해진다. 또한, 행동이나 선택의 모든 가능성에 선행하는 나의 수동성의 층위에서 확립된 타자와의 관계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다.⁴³ 자신에 대해 결코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주체는 당연히 윤리적 함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 없는 존재의 층위들에서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⁴ 다시 말해, 우리의 자아와 주체가 ‘자율적 결정성’보다는 ‘타율적 관계성’에 기대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개인의 독립성보다 공동체와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해진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타자에게 의존적이며, 내부에 언제나 타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존재가 근본적으로 관계와 사회, 세계로 구성된다면 당연히 관계와 사회,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버틀러를 경유하면 탄실이 지닌

42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제29권, 2018, 77쪽.

43 버틀러, 앞의 책, 2013, 155쪽.

44 위의 책, 232쪽.

45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정치 윤리학 - 근본적 상호 의존성과 윤리 폭력에 대한 비판」, 『인문학연구』 제24호, 2013, 35쪽.

‘정숙한 여자’에 대한 일념도 단순히 기존의 가치관을 내면화한다고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상호의존성에 대한 마지막 분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학을 통해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타자의 자리에서, 타자로서 발화하며 근대문학장에서 한 작가로서의 책임을 지려한 김명순의 분투이기도 하다.

‘혐오에 대한 저항’이든, ‘문학을 통해 피해자에게 언어를 부여’한 것이든 기존의 주된 관점은 모두 김명순의 서사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소설적 완결을 끝맺지 못했고, 성폭력 피해 역시 피해자의 언어로 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명순 역시 근대 문학장이나 사회 담론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완전한 주체의 말하기는 언제나 ‘나’와 ‘언어’와 ‘타자’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실패한다. 김명순은 근대가 요구한 ‘나를 일관되게 설명하기’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얼마나 타율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증명했다. 타자는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존재지만, 여전히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타자의 인정도 필요로 한다. 그런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말하면서, 규범과 언어를 탈주한다는 것이 「탄실이와 주영이」의 진정한 의의라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김명순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의 말하기가 버틀러가 이야기한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와 어떻게 공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김명순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들은 모두 규범 폭력에 의해 타자화를 경험하면서 유무형의 폭력을 겪은 이들이다. 폭력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신체가 돌출되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출현 조건에 대해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에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그들은 자신 안의 타자성을 마주한다. 이렇게 타자성을 마주한 근대여성주체들은 이제 자신이 허물어지더라도 ‘수동성’, ‘민감성’, ‘반응성’을 숨기지 않고 내비친다. 이는 분열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편지를 쓰거나(「칠면조」), ‘타자의존성’을 자각하고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인식하거나(「돌아다볼 때」), 문학을 통해 타율적 관계성을 조망하고 주체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탄실이와 주영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김명순의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와 동일하게 김명순에게도 문학이란 그러한 윤리적 말하기의 방식이었다. 다양한 스캔들로 고통받았던 김명순은 때로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 때로 자신에게 가해진 혐오의 시선을 되돌려주기 위해 문학을 썼다. 그녀의 문학 속 근대여성주체는 고통과 울분,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통해 자기 삶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길을 택했다. 버틀러의 다음과 같은 의문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품었던 질문과 맞닿는다.

내가 특정한 젠더여도 여전히 나는 인간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을까? 내가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인간’ 개념이 확장될까? 특정한 방식의 욕망을 표현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삶을 영위할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 의존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⁴⁶

이때 버틀러가 말하는 ‘인정’은 “이미 우리인 것(what we already is)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생성을 간청하는 것, 변형을 부추기는 것, 언제나 타자와 연관이 있는 미래를 탄원하는 것이다.”⁴⁷ 김명순의 근대여성주체들은 ‘이미 있는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식민주의의 모든 보편의 폭력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이 때문의 그의 소설은 민족문학 진영과 프로문학 진영 모두에게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근대여성주체는 당시 조선 문단과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근대소설에 대한 관념, 민족이나 계급이라는 근대의 보편적 규범에 감화되지 않고,⁴⁸ ‘타자와 연관이 있는 미래’를 탄원했다.

따라서 근대여성주체의 의미는 가장 분명한 이방인으로서 언제나 바깥을 향하는 말하기를 지향했다는 데에 있다. 물론 ‘바깥을 향하는’ 김명순과 그의 인물들의 말하기는 당대에도 그 이후에도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다. 김명순은 그의

46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Undoing Gender』, 문학과 지성사, 2015, 12쪽.

47 위의 책, 77쪽.

48 김도경, 앞의 글, 58쪽.

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대의 남성 작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그녀의 소설 속 근대여성주체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보다 여전히 ‘나쁜 피’나 사회의 규범에 사로잡혀 소외된 자로 머물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하기는 언제나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행한 윤리적 말하기의 성패 여부는 혁명의 성공 여부보다 실패해도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는가를 통해 다시 논해져야 한다. 윤리적 주체의 말하기는 내 속의 타자를 인정하고, 규범 속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끊임 없이 탈주하고자 하는 과정 자체이다. 김명순의 여성 인물들은 그러한 탈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끝없는 말하기에 대한 의지야말로 문학사를 새롭게 재배치하는 동력으로 재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김명순 이후 여성 문학에 대한 평가도 김명순을 향했던 시선과 유사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곧 여성 문학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남성 작가/평론가들이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이라 표현했던 그 많은 자질들은 기실 타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주체의 말하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다. 이렇게 새로운 윤리적 실천의 구도를 문학사 기술에 도입할 때, 많은 인물의 목소리가 재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을 보유한 말하기’는 단지 여성작가/인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조건으로 ‘인간’이 길 거부당했던 다른 주체들의 말하기를 발굴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고, ‘크레온’ 역시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했다. 김명순을 향한 공개적 비난은 쉽사리 멈춰지지 않았지만, 김명순은 소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문학청년’들을 소환했다. 버틀러가 젠더를 허물고 ‘불완전한 주체’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안티고네’와 ‘김명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크레온’과 ‘문학청년’들도 그들의 욕망과 행위를 제대로 이해받기 위해 젠더 규범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한 단수’임을 사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본 연구는 버틀러의 이론을 통해 근대여성주체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버틀러의 후기 이론은 문학보다는 정치학과 윤리학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 사유가 충분히 문학과 맞닿는 데가 있다. 젠더 규범을 비롯한 다양한 규범 속에서 고민하는 개별 주체를 형상해 온 것은 언제나 문학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문학에서조차 언제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타자’가 존재해왔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학에 요청되는 윤리는 우리가 ‘주체’라 생각하고, ‘인간’이라고 생각해 온 규범이 얼마나 편협한 토대 위에 쌓인 것인지를 깨달은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주체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타자와의 필연적인 관계성을 증명한 버틀러의 논의는 문학사를 논할 때 쉽사리 기존 담론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개별 주체가 행해 온 윤리적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복적인 방법론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문학사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작가의 작품을 막론하고 근대여성주체의 말하기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다른 시대의 주체들을 바라보는 데에도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버틀러의 이론이 영문학사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을 재해석할 여지를 주었던 것과 같이 ‘근대’의 동일성으로 포섭되었던 다양한 근대 소설에 대한 재해석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첫 단추를 다시 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한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로서 균형 잡힌 문학사를 서술해나가는 일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김명순, 『김명순 문학전집』, 서정자·남은혜 편, 푸른사상, 2010, 297-337쪽.
 _____, 『외로운 사람들』, 송명희 편, 한국문화사, 2011, 31-58, 63-99, 223-282쪽.
 _____,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심진경 편, 교보문고, 2018, 260쪽.

단행본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 모음, 2010, 20-37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13-52쪽, 139쪽.

_____,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54쪽.

_____,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37, 48, 75, 76, 77, 95, 104, 112, 142, 155, 158, 160, 232쪽.

_____,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12쪽. 77쪽.

논문

김도경, 「김명순에 대한 두 개의 진단과 김명순 소설의 존재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35-62쪽.

김양선, 「여성성, 여성적인 것과 근대소설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 제5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60-81쪽.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제29권, 2018, 59-86쪽.

남은혜,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제3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99-242쪽.

_____, 「김명순 소설 <도라다볼때>, <외로운 사람들>에 나타난 신여성의 의미 연구-이광수 <재생>,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3-38쪽.

송명희, 「김명순의 소설과 외로운 사람들 모티프 연구」, 『비평문학』 제59권, 한국비평문학회, 2016, 89-122쪽.

_____,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123-154쪽.

_____, 「불안한 자아를 통찰하는 심리주의 소설」, 『문예운동』 제139호, 문예운동사, 2018, 176-192쪽.

심진경, 「‘김명순’이라는 텍스트와 유전(流轉)하는 여성 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31-255쪽.

양효실, 「타자와 실패의 윤리-주디스 버틀러와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교차로에서」, 『시대와 철학』 제25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41-72쪽.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정치 윤리학-근본적 상호 의존성과 윤리 폭력에 대한 비판」, 『인문학연구』 제24호, 2013, 29-56쪽.

_____,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39-266쪽.

_____,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 『비평과 이론』 제24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69-93쪽.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487-511쪽.

Abstract

Ethical Discourse of an Incomplete Subject

: Focusing on the Modern Female Subjectivity in Kim Myung-Soon's Novels

Lee Suji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modern female subjectivity portrayed in the novels of Kim Myung-soon through Judith Butler's theory of ethical subjectivity and to highlight its value. Butler argues that the violence of 'abstract universality' should be exposed, and an imperfect subject as a 'vulnerable singularity' must assume responsibility throug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The modern female subjects in Kim Myung-soon's novels experience objectification through the normative violence of modernity and undergo various forms of tangible and intangible violence. They encounter experiences where their own and others' bodies are projected through violence, and they constantly fail in their efforts to justify their conditions of emergence, thus confronting alterity within themselves. In confronting alterity, these modern female subjects do not conceal their 'passivity,'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but rather express them openly. This takes the form of writing letters (Turkey(Chilmyeonjo)), being aware of their dependency on others and recognizing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with other women ('Looking Back'), or contemplating relationality through literature and reconfiguring the subject ('Tansil and Joo Young'). The ethical discourses enacted by modern female subjects as imperfect subjects reveal the necessity to revisit the excluded subject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Key words: Kim Myung-soon, Butler, passivity, vulnerability, imperfect subject, ethical subject

논문제출 / 2023. 07. 14.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4.